

간성읍 죽왕면 토성면

▶죽왕면 시민기자
최돈불(choi3789100@hanmail.net)
▶토성면 시민기자
강성희(ruthcanada@hanmail.net)
김태국, 백옥식

※간성·죽왕·토성에서 발생하는 아기
자기한 소식이나 미담 등을 소개하는 시
민기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 681-1666>

영동OA사무기

□디지털복사기 □소모품판매
□잉크젯·레이저 프린터 □팩스
□복합기렌탈 □LCD프로젝터

681-7607, 010-3179-7607

점포매매

-점포명 : **이삭토스트** 간성점
-위 치 : 농협중앙회 맞은편
-문 의 : 010-7535-5220

점포매매

김밥천국 인수하실 분

“가격은 상담 후 결정”

김밥천국 고성점 ☎(033)681-9999

탐동 청정표고 서울 판로 개척

탐동1리·강동세무서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

간성읍 탐동마을과 서울 강동세무서의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식’이 지난 19일 탐동마을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자매결연식에는 황종국 군수를 비롯한 기관사회단체장 10여명과 장운길 강동세무서장 및 강동세무서직원 40여명, 김철수 탐동1리 이장 및 탐동마을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철수 탐동1리 이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진행된 이날 자매결연식은 탐동마을과 강동세무서의 자매결연협약서 서명에 이어 선물전달식, 오찬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이번 자매결연식은 농촌사랑운동의 일환으로 탐동리가 고향인 장운길 강동세무서장의 남다른 애착과 열정으로 이뤄지게 됐다.

이번 자매결연식을 통해 강동세무서는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봉사활동을 펼치고, 서울에서 직거래 장터와 제 3자에게 판매 장려활동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표고버섯 재배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탐동마을에서는 판로개척과 홍보에



지난 19일 탐동1리 김철수 이장(왼쪽)과 서울 강동세무서 장운길 서장이 자매결연 조인식을 가진 뒤 참석자들에게 보이고 있다.

도움이 돼 표고버섯을 안정적인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운길 강동세무서장은 “이번 자매결연식을 통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촌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보다 진정한 마음으로 농촌사랑을 실천하겠다”고 했다.

김철수 탐동1리 이장은 “농가에서는 표고버섯 재배에만 몰두하느라 현실적으로 판로개척과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 같은 걱정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탐동마을에서 재배되는 청정 표고버섯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원광연 기자

가진항 민원편의·치안여건 향상

속초해경 가진출장소 25일 신청사 준공식...장애인 겸용 화장실 갖춰

죽왕면 가진리 가진항에 장애인 겸용 화장실을 갖춘 해경 가진출장소 신청사가 완공돼 어민들의 민원행정 서비스와 치안여건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홍희)는 25일

는 오후 3시 가진출장소 신청사 준공식을 갖는다.

신축 가진출장소는 지난 8월 착공해 2개월 20여일의 공사기간을 거쳐 완공됐으며, 264㎡(80평)의 부지에 사무실 면적은 101㎡(30평)이다. 장애인 겸용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해 장애인과 민원인들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게 됐다.

특히 기존 교대일근형(오전 9시~오후 6시) 근무형태에서 3교대 근무 출장소로 전환돼, 24시간 경찰관이 근무하게 됨에 따라 가진항의 치안여건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속초해경 박영철 해상안전과장은 “이번 가진출장소 준공을 계기로 주민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및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진항은 어업인과 해상종사자 130여명과 40여척의 중·소형 선박 등 통항이 빈번한 항구이며, 해경 가진출장소는 선박출입항신고 접수와 선원신원확인, 해난구조 및 해상치안업무를 비롯한 대민 봉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최광호 기자



25일 준공식을 갖는 속초해양경찰서 가진출장소 신청사.